

광주시, 주요 부서·정원 조정... '에너지·미래차' 집중

필수현안 대응... '자치법규' 입법예고
첨단산업 유치... 에너지업무 일원화
시내버스 노선 개편 대중교통 강화
119상황실에 '소방·경찰 원팀' 구성

광주시가 주요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민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조직 체계 마련을 위해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조정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필수 현안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자치법규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에너지·미래차산단 조성·통합돌봄 조직 강화 △시내버스·도서관·동물보호센터 준비 및 운영 △119상황실 '소방·경찰 원팀' 운영 등이다.

먼저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과 RE100 신산업 모델 발굴 등 미래차·데이터·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이원화된 에너지 업무를 인공지능산업실에너지산업과로 일원화한다.

인공지능산업실 투자산단과에는 미래차국가산단 조성 전담 공무원(5급)을 배치하고 관계 부처 협력 강화와 산단 입주 기업 유치를 준비한다.

복지건강국 돌봄정책과는 2026년 시행

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통합돌봄 정책의 빈틈을 메우고, 보건소·의료기관과 연계하는 광주시만의 차별화된 돌봄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 대한민국의 '돌봄 정책과 서비스 표준'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하철 2호선 개통, 광천권역의 새로운 대중교통체계 도입 등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필요함에 따라 통합공항공도국 대중교통과 기능을 강화하고, 촘촘한 시행 준비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문화체육실 문화유산자원과는 기능을 재편해 인문도시 진흥과 도서관 개관 준

비를 본격화한다. 인문학 진흥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지원하고, 시립 하남도서관(2025년 하반기 개관)과 대표도서관(2026년 개관 예정)을 연결해 '책 읽는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노벨문학 도시 위상을 높여나간다.

경제창업국 농업동물정책과는 광주동물보호센터 개관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동물보호소를 통합 운영해 개·고양이 보호와 입양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한다.

광주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배치해 '소방·경찰 원팀'을 구성한다. 재난 발생 초기부터 협업과 대

응으로 현장상황에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안전한 재난·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이번 일부 조직 재편으로 변경 기준 15실·국·본부 72과는 현재와 같고, 공무원 정원은 경찰공무원 4명이 늘어나 총 4186명이 된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7월 조직 개편 이후 새로운 정책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것"이라며 "주요 정책의 차질없는 이행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시, '크리스마스 광주 빛축제' 연다

연말연시 겨울축제 통합 브랜딩
사직·양림-ACC·시청-운천저수지

광주시는 연말연시 겨울철에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행사를 통합브랜딩한 '2024 크리스마스 광주 빛축제'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사직동, 양림동, 아시아사음식문화지구, 5·18민주광장 일대는 화려한 빛조형물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구성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 유네스코 창의벨트 3권역 사직공원 '빛의 숲'은 기존 역사자원, 공공미술, 사직타워, 사직단 등과 연계한 주야간 관람이 가능한 테마파크형 미디어아트 공원으로 조성됐다.

양림동 일원에서는 양림&크리스마스 문화축제가 12월 31일까지 열린다. 양림오거리의 대형트리와 함께 양림동 곳곳에 경관 포토존이 조성된다. 크리스마스 이브닝 행사, 촛불퍼레이드, 캐롤공연, 공예거리 산타페스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양림동과 5·18민주광장, 동명동을 연결하는 '빛의 거리 벨트' 조성을 위한 아시아음식문화지구 빛의 거리가 18일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된다.

5·18민주광장 주변의 빛의 음성, 빛의

분수대, 음악 분수대 등 미디어야간경관 자원과 연계해 금남로, 빛의 음성 거리, ACC 주변에 가로수 조명이 설치된다.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일대에는 다양한 거리조형으로 거리를 환하게 밝힌다. 이와 함께 20~21일에는 아시아문화거리협의회 주관으로 구시청 나이트페스티벌을 개최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흠뻑 느낄 수 있다.

5·18민주광장에는 대형트리, 빛조형물, 캐롤 버스킹 공연, UCC경연대회 등으로 구성된 빛고을성탄문화축제가 아름다운 겨울밤을 선사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빅도어에는 연말연시 선물이 준비된다. 대형 조명리본과 선물상자조명 큐브박스는 물론 문화정보원 로비에는 대형트리가 설치돼 주야간 문화전당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광주시청 잔디광장 크리스마스스윙, 광주 송정역 광장 크리스마스트리, 광주시립수목원 전시온실 크리스마스트리, 북구청 광장 크리스마스 야간경관, 운천저수지 크리스마스 트리, 광주신세계백화점야간경관 등 광주 곳곳이 아름다운 조형과 포토존으로 꾸며진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관광포털 '오매광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의회, 집행부 예산 407억원 삭감

5·18 무료대중교통 등 감액
선심성 예산 90억 증액 논란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가 내년도 광주시 예산 407억원을 감액한 반면 지역구 선심성 예산은 90억원 증액해 논란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5년 본예산으로 제출된 7조6069억원에 대해 시의회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진행하고 5·18 무료 대중교통은행, 사회관계망서비스 운영, 호남관광문화주간,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요산업단지 무료셔틀버스 운영 예산 등 407억5000만원을 감액했다.

또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기록물 아카이빙 5000만원, 민주시민 교육운영비 4000만원, 5·18사적지 남동성당 쉼터 설치비 5000만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서명의원 상징패 제작비 3000만원, 국내외 교류협력전시비 1500만원도 전액 감액했다.

광주전략추진단은 내년 운영 예산으로 3억3658만6000원을 제출했지만 77.7%인 2억8258만6000원을 감액해 조직 해체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와 전남·북이 호남권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우선 추진하기로 협의한 '호남관광 문화주간' 예산 1억5000만원도 전액 깎였다. 올해까지 14차례 운영된 세계인권도시포럼 예산도 5억5000만원이 책정됐지만 2억원이 감액됐으며 대중교통이 열악한 하남·첨단·평동산단 무료셔틀버스 운행 예산 4억8000만원도 2억4000만원이 삭감됐다. 이 밖에도 광주김치축제 예산은 8억원 중 4억원만 반영됐으며 지역미래먹거리 발굴 예산 6억원과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 예산 2억원 등은 전액 감액됐다.

반면 자치구가 전담하고 시가 일부 지원되는 도시공원 관리 예산은 25억원에서 35억원으로 10억원 증액했으며 주민 자치 역량 강화 및 컨설팅 예산 3620만원은 새롭게 편성됐다. 아울러 모범공인중개사무소 지정·운영 예산 910만원,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 3500만원, 양동·무동시장 축제 지원예산도 각각 2억원과 1억원 증액됐다. 노병하 기자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7일(현지시간) 일본 사가현 우레시노시 우레시노마치 와타야벡스에서 열린 제32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희업 부산광역시 정책수석보좌관, 우라 마사키 나가사키현 부지사,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난리 다카시 사가현 부지사, 김애숙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오마가리 아키에 후쿠오카현 부지사,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히라야 다카유키 아마구치현 부지사. 전남도 제공

남도한바퀴, 전남 겨울관광 테마상품 마련

'장흥·강진 꿈꾸는 여행' 등 14개
올해 2만6690명 관광객 이용 인기

전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가 전남의 겨울을 즐길 다양한 테마상품을 준비해 관광객을 맞이한다.

남도한바퀴는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쉽고 편하게 도내 다양한 관광지를 즐기도록 광주 유스퀘어, KTX 광주송정역과 연계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계절별 테마상품과 전남·광주 공동상품, 전남지역 주요 축제와 연계 운영 등 남도의 문화와 자연, 미식을 맛볼 다양한 코스를 9900원부터 시작하는 착한 가격으

로 운영,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전남의 겨울을 즐길 주요 테마상품은 △대한민국 노벨문학상의 산실인 '장흥·강진 꿈꾸는 여행' △남도의 숲과 바다가 주는 휴식과 힐링을 즐기는 '광양·순천 즐거운 여행' △서해 최고의 해안길을 볼 수 있는 '함평·영광·무안 주말여행' 등 총 14개 코스다.

남도한바퀴는남도 전통문화를 체험할 '진도·해남 소릿길 여행', 남도의 시원한 바다와 크루즈를 즐길 '여수 크루즈 여행', 푸른호수 가운데 적벽을 담은 '화순·담양 비경여행' 코스가 전남만의 매력으로 큰 인기를 끌어 매회 좌석을 가득 채웠

다. 또한 관광지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전남 관광지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1월 말까지 986회 운영, 2만6690명의 관광객이 이용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219명이 증가했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올 한해도 2만6000여 명의 많은 관광객이 남도한바퀴를 통해 전남을 방문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여행상품과 내실있는 운영으로 다시 찾는 글로벌 매력 도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고품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가동

장비 47종 구축·12개 기업 입주
'AI 중심 디지털 농업 전환 선도'

전남도는 고품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농업용 로봇 등 첨단 농업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실증단지를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전남도는 150억 원을 투입, 지난해 10월 스마트팜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이 입주해 연구개발과 실증을 진행할 4.05ha

(온실 1.92ha·노지 2.13ha) 규모로 실증단지 조성을 완료했다.

현재 실증단지에는 정보통신기술 기자재와 생육 실증 장비를 포함한 총 47종의 장비를 모두 구축했으며, 12개 기업이 온실 구역에 입주해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바이오테이즈는 방울토마토의 병해충 예방을 위한 미생물 제제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린씨에스는 네덜란드 기술로 구축된 반밀폐형

온실을 활용, 토마토를 재배하는 실증 연구를 통해 한국형 반밀폐형 온실 개발을 목표로 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는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농업용 로봇, 무인 농기계 등 첨단 농업 기술을 실증하고 보급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남도가 인공지능(AI) 중심의 디지털 농업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